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21 vol.226

CLASH [UN]LIMITED

Cartier

Publicis EtNous

HERMÈS
PARIS

Objects connect.

16

17

24

12

10 **SELECTION for him** 가을의 정석, 클래식 코드 브라운.

12 **SELECTION for her** 토피 컬러에서 밀크 초콜릿 색조로 한층 부드러워진 2021 F/W 브라운 팔레트.

16 **제주 동쪽, '워케이션(WORKATION)' 공간 문화를 품다** 현대인의 삶을 수놓은 여러 키워드를 꼽자면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흔히 통용되듯 '일과 삶의 균형(work-and-life balance)'의 준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좀 편향된 시각의 번역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대다수에게 일은 엄연히 삶의 일부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나 전부나 마찬가지일 만큼 근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물론 여기에서 '삶'은 사적인 삶이나 일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째서 '일과 삶을 갈라서기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조직 관리자나 크리에이터라면, 아니 기왕 하는 일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프다면 누구나 반가워할 만한 트렌드가 바로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일과 휴가를 합친 말인데, 처음엔 주로 시큰둥과 비아냥으로 점철된 반응을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업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마침 자연과 문화 예술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워케이션 공간이 생겼다. 제주 동쪽의 호젓한 대자연 속에 자리 잡은 코시아이티 빌리지(Cociety Village). 그 현장을 체험해봤다.

18 **ULTIMATE ELEGANCE** 눈부신 광경으로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 로맨틱 타임피스.

19 **ENCHANTING STONE** 농익은 과일처럼 짙은 컬러를 뽐내는 스톤 주얼리의 매력.

20 **DREAM COLOR** 심플함에 컬러를 더해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컬러 다이얼 워치.

21 **BAGS ON TOP** 자연스러운 품위와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2021 F/W 백 트렌드 4.

22 **2021 F/W MENSWEAR TREND REPORT** 완벽한 실루엣과 여유로운 애티튜드로 부드러운 남성성을 어필한 이번 시즌. 실험적인 접근은 뒤로하고, 의복 본연의 본질에 집중한 듯 보인다. 일상성이 강조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요소는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기하학적 모티브 혹은 컬러 블로킹을 활용한 정도다. 드레싱 가운이나 폴로 셔츠 등 실용적인 아이템이 강세를 이루며, 스타일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든 아이템 하나하나가 스타일에 완성도를 더한다.

24 **END OF THE ROAD** 계절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을, 겨울을 여는 2021 F/W 남성복 키룩.

32 **ABOUT A FRAME** 남자의 룩은 안경테로 완성된다.

33 **WHISKEY WONDERS** 하루에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위스키를 즐기기에 더없이 완벽한 계절, 가을.

34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 건강을 지켜줄 필수 아이템 13.

우아하면서도 자유로운 클래식을 추구하는 토즈는 2021 F/W 시즌 광고 캠페인을 통해 관능적인 여성의 유려한 몸짓을 다양한 컬러로 담아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발테르 키아포니는 아이코닉한 오브제를 재해석해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볼륨감과 다양한 소재, 그리고 새로워진 디테일을 선보이며 탁월한 안목으로 모던한 이탈리언 감성에 찬사를 보냈다.
문의 02-3448-6008

Style 조선일보

Issue.226 September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분해 · 제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FENDI.COM

PEARL FACE

황홀한 진주빛 타원피스. (왼쪽부터) **피아제 라임라이트 스텔라 워치** 머더오브펄을 바탕으로 다이얼 중앙 전면에 우아한 레드빛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올리고, 1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기품을 더했다. 여기에 약 0.64캐럿의 1백26개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두르고, 레드 앨리게이터 스트랩으로 우아하게 마무리. 피아제 자체 제작 584P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5천2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에거 르쿨트르 랑데부 아이비 투르비옹** 막 피어난 듯 생동감 넘치는 아이비 모티브의 섬세한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주얼 세공의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제품. 6시 방향에는 투르비용을 대해 정교한 기계식 메커니즘의 면모를 보여준다. 1억7천만원대. 문의 1670-1833 포토그래퍼 **박지용**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다시 만난 세계

클래식한 영국적 뷰티 감성을 담아 에지 있는 메이크업 라인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버버리 뷰티를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지난 8월 20일,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버버리 뷰티 단독 매장이 입점했다. 첫 캠페인 비주얼로 선보이는 제품은 강렬한 레드 립스틱으로, 버버리의 시그니처 체크를 새긴 골드 패키지 뷰터 큰 입팩트를 선사한다. 가장 클래식한 106 더 레드 컬러부터 총 31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 버버리 키세스 립스틱을 직접 발라보고 구입할 수 있다니, 감동 그 자체다. 버버리 키세스 시틴 106 더 레드 3.3g 4만5천원. 문의 080-850-0708

I AM CHARLIE

루이 비통은 '찰리'라는 이름의 스니커즈를 출시하며 패션계에 부는 '진화경' 트렌드에 동참했다. 이웃솔은 재활용 러버로 제작했고, 본체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와 옥수수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인 바이오폴리올 합성 소재를 적용했다. 신발 끈과 설포, 신발 뒤축과 메종의 시그니처 로고에는 100% 재활용 가능한 에코날을 사용했다. 지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지켜하는 이 젠더리스 피스에 대한 반향이 기대된다. 1백만원대. 문의 02-3432-1854

#HAIRBAND

로맨틱 시즌의 결정체, 헤어밴드(위부터) 단돈하고 간결한 매력의 리나임론 헤어밴드 35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낭만적인 크리스털 장식이 특징인 헤어밴드 83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20. 벨벳 밴드에 크리스털과 펄 장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비비에 블로섬 헤어밴드 1백41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품격의 시간

피아제에서 심플한 룩에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세련된 분위기와 우아함을 한 스푼 얹어주는 심플한 디자인의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를 선보인다. 골드와 스틸 버전을 포함한 총 여섯 가지로 출시되며, 모던한 케이스 디자인에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경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손목 위 훌륭한 액세서리이자 워치가 되어줄 것이다. 골드 버전 6천4백만원대, 스틸 버전 2천6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SHAPE SENSATION

자신만의 확고한 개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까르띠에만의 독창적인 주얼리, 클래쉬 드 까르띠에를 소개한다. 클래식한 향태를 벗어난 과감한 스타일과 반대되는 간결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이질감 없이 어느 룩에나 연출하기 좋다. 같은 뾰족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기하학적인 매력과 동시에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더한다. 18K 핑크 골드 소재로 이뤄져 있다. 브레이슬릿 1천6백만원대, 링 6백20만원대. 문의 1566-7277

#수분공급

피부 톤 개선과 수분 공급, 모공 수축 기능을 아우르는 스위스퍼펙션 셀루라 밸런싱 워터. 다마스크 장미와 가시칠엽수 씨, 감초 뿌리 추출물을 이상적으로 배합했다. 미스트 향태의 토너로 사워 후 기분게 분사하면 피부가 목마를 틈 없이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pH 밸런스를 이상적으로 맞춰주어 스킨케어 다음 단계에서 제품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돕는다. 100ml 13만8천원. 문의 1644-4490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CARRY ON

가을을 맞아 신상 백을 찾고 있다면 토즈 오보에 백을 추천한다. 2021 F/W 시즌을 맞이해 미이크로 사이즈를 새롭게 선보이는 토즈 오보에 백은 해머드 가죽 소재와 곡선으로 떨어지는 세이프가 가을과 잘 어우러지는 우아한 무드를 선사한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지퍼 잠금장치, 길이 조절 가능한 핸들이 실용적이다. 올가을 어느 룩에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데일리 백이 될 것이다. 2백70만원대. 문의 02-3438-6008

HOLY SCENTS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향을 채우는 캔들 다섯 가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마티노 캔들라 프로퓨마타** 숲속의 이른 아침처럼 맑고 상쾌한 발사믹과 민트가 어우러진 향 200g 10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불리1803 레 푸지 파푸메 밀로의 비너스 향** 플로럴 계열 향으로 불리 로고가 새겨진 대리석 케이스가 마치 공예품처럼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300g 24만원. 문의 02-511-3439 **루이 비통 하우스 캔들 컬렉션 엉 매** 싱그러운 과일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향으로, 생기 넘치는 자연과 여행의 기쁨을 표현했다. 220g 30만원. 문의 02-3432-1854 **엑스니힐로 센티드 홈 캔들 부케 미스틱** 자기 소재의 화이트 패키지가 돋보이는 캔들로, 겨울 정원에서 느껴지는 미스터리하고 은은한 꽃향기를 담았다. 300g 9만원. 문의 02-6905-3353 **리부르갱 캔들 타박** 시더우드와 티버크에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해 묵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캔들 50g 3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박지용** 에디터 **성정민**

EXHIBITION

나비넥타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 텅 빈 여행 가방, 면도날과 세이빙 크림…. 짙은 청색 계열의 일상용품이 큼지막하게 '과장된' 크기로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 풍경은 딱 봐도 '팹아트' 느낌이다. 그런데 차분하게 가라앉은 색조가 어렴풋이 뿜어내는 느낌처럼, 이 친숙한 오브제 속에는 어두운 심리적 암류(暗流)가 숨어 있다. 미국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30대 닉 도일(Nick Doyle)은 은연중에 사물에 부여된 성별화된 이미지를 다뤄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남성적으로 편협하게 인식되는 일상의 도구를 숨 막히는 본질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했다. 그가 즐겨 써온, 노동자들의 작업복이자 반문화 운동의 기표이기도 한 데님을 여전히 재료로 사용했고, 미국 카우보이의 허망한 신화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베지터블 가죽도 새로 도입했다. 전시명은 〈Everything is Fine〉이지만 작가가 바라본 미국적 삶의 풍경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갤러리 페로탕 서울에서 오는 10월 1일까지. Photo by Guillaume Ziccarelli,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체크 싱글 재킷 2백만원대 **디스퀘어드2.**

로고 프린팅 트라이앵글 미니 백 86만원 **셀린느.**

이세테이트로 제작해 가볍고 실용적인 에이비에이터 선글라스 50만원대 **펜디.**

스타일리스트 **조서린** 에디터 **이주이**

엘로 골드 버클로 장식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3백50만원 **프레드.**

카무플라주 자카드 새들 다올 앤 피터 도이그 백. 40X29.5cm, 4백80만원 **다올.**

클래식 우븐 가죽 벨트 40만원대 **토즈.**

라일리 레이스업 슈즈 85만원 **실바토레 페라가모.**

for him Selection

가을의 정석, 클래식 코드 브라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T1 옐로 골드 소재 링 3백11만원 **티파니.**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1백7만원 **처치스.**

캔버스 소재의 르 모노그램 EAST/WEST 지갑 53만원 **생 로랑.**

라지 링 모노그램 아젠다 커버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프라이에르 B09 크로노그래프 40 워치 2천1백78만원 **브라이틀링.**

플랫 토트백. 43X43.5cm, 2백5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브라운 첼시 부츠 가격 미정 **에르메스.**

부츠 컷 크림클 코듀로이 팬츠 1백92만원 **구찌.**

셀린느 02-549-6631
펜디 02-514-0652
프레드 02-514-3721
토즈 02-3438-6002
다올 02-3480-0104
디스퀘어드2 02-3445-3107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3
실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생 로랑 02-525-2250
티파니 02-6250-8620
처치스 02-3218-5331
브라이틀링 02-3448-1230
루이 비통 02-3432-1854
구찌 02-3452-1921
에르메스 02-542-6622

church-footwear.com

Church's
English shoes

에이비에이터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미퍼 스퀘어 스카프 63만원 **다올.**

멜로 골드 빽틀리 스위트 클로버 링
9백20만원 **반클리프 아펠.**

티파니 하드웨어 링크 펜던트 네크리스
3백26만원 **티파니.**

체인 장식 핸들과 카드 슬롯 포켓을
장착한 휴대폰 케이스 25만5천원 **MCM.**

자브리 패턴 재킷 140만원대 **폴로 랄프 로렌.**

하네스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커브 백.
19X23cm, 1백89만원
알렉산더 맥퀸.

지름 34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7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알티플라노 시계 3천60만원 **피아제.**

강렬한 체인 장식 레더 스트랩 샌들
30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PIAGET

for her Selection

토피 컬러에서 밀크 초콜릿 색조로 한층 부드러워진 2021 F/W
브라운 팔레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대담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체인 브레이슬릿
1백7만5천원 **지방시.**

패디드 디테일로 포근한
매력을 더한 나일론 롱부츠
1백50만원대 **미우미우.**

스타일리스트 **조서린** 에디터 **이주이**

프린지 레더 드레스 1천2백만원대 **에르메스.**

cut & sawn
디테일 브라운 레더
글러브 1백만원대
에르메스.

로고 프린팅
스크런치 39만원
셀린느.

피카부 'I SEE YOU'
미디엄 백.
33.5X22.5cm,
6백만원대 **펜디.**

샤넬 080-200-2709
다올 02-3480-0104
펜디 02-514-0652
MCM 02-540-1404
피아제 02-3479-1802
지방시 02-546-2790
에르메스 02-544-7722
셀린느 02-549-6631
티파니 02-6250-8620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미우미우 02-3218-5320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폴로 랄프 로렌 02-6004-0220

issey miyake.com

©2021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

Brands & Marketing series_6 코사이어티(cociety) 빌리지

제주 동쪽, '워케이션(workation)' 공간 문화를 품다

현대인의 삶을 수놓은 여러 키워드를 꼽자면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흔히 통용되듯 '일과 삶의 균형(work-and-life balance)'의 준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좀 편향된 시각의 번역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대다수에게 일은 엄연히 삶의 일부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나 전부나 마찬가지일 만큼 근엄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물론 여기에서 '삶'은 사적인 삶이나 일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째서 '일'과 '삶'을 갈라치기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조직 관리자나 크리에이터라면, 아니 기왕 하는 일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프다면 누구나 반가워할 만한 트렌드가 바로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일과 휴가를 합친 말인데, 처음엔 주로 시큰둥과 비아냥으로 점철된 반응을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업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마침 자연과 문화 예술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워케이션 공간이 생겼다. 제주 동쪽의 호젓한 대자연 속에 자리 잡은 코사이어티 빌리지(cociety village). 그 현장을 체험해봤다.

절세의 비경(祕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제주의 존재는 늘 경이롭다. 더구나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거의 막혀버린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 아름다운 우리네 화산섬의 소중함이 한층 더 크게 와 닿는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비와 깊이가 남다른 제주의 거대한 심장은 잘 알려졌다시피 해발 1,950m를 뽐내는 한라산이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남과 북은 산의 앞뒤를 나눈다 해서 '산압', '산두'라 불리고, 동과 서는 동촌과 서촌으로 통하기도 한다. 동촌은 오름이 많고 평지가 적어 서촌에 비해 개발이 덜 된 터라 상대적으로 더 한적하고 고요하며, 어딘지 모르게 애잔하고 신비로운 자연미를 담뿍 머금고 있다. 한라산 아래 중산간 지대의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코사이어티 빌리지(cociety village) 제주는 동촌다운 영묘하고 고적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천혜의 자연 속 에 나지막이 터를 잡았다. '크리에이터 라운지'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던 서울숲점(서울 성수동)으로 잘 알려진 공간 브랜드 코사이어티의 두 번째 사이트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주황색 간판이 보이고, 그 뒤로 다채로운 꽃과 풀, 나무에 둘러싸인 단지가 평평하고 넉넉하게 펼쳐진다. 느림의 미학이 절로 연상되는 풍경의 한 자리는 카페가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슬로 커피'의 대명사 블루보틀! '워케이션' 문화를 제안하는 복합 공간에 찰떡궁합인 브랜드다.

#'work & rest with inspiration' 공간 문화, 새로운 현상이 될까?

서울을 벗어난 첫 번째 블루보틀 매장이라는 존재감을 보여주듯 입구부터 똬리를 틀고 있는 인파가 눈에 띈다. 심지어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도 대수롭지 않은 듯 차분히 입장을 기다린다. 카페로 들어가면 바람결에 흔들리는 털수염풀 가득한 산책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일 수 있는 제주 매장만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두셋씩 짝 지어 수풀 사이로 거니는 연인이나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이 광경을 보고는 누군가는 반드시 뼈 있는 농담을 던질 것 같다. "아니, 굳이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여행지까지 와서 일을 한다고?", "일과 휴가를 굳이 왜 같이?" 사실 필자도 예전 같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갸우뚱했던 기억도 있다. 10여 년 전쯤 괴짜 CEO로 유명했던 글로벌 광고 기업 사치앤사치의 케빈 로버츠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일과 삶의 균형이란 숨 가쁜 프로페셔널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일과 삶의 통합'론을 펼치자 내심 흥미롭긴 해도 과연 한국에서 통할까 싶었다.

이미지 제공 **코사이어티(cociety)**, **노경**(작가)

1~2 제주 동쪽의 빼어난 풍경이 돋보이는 구좌읍 송당리에 문을 연 코사이어티 빌리지 제주. 공간 브랜드 코사이어티(cociety)의 서울숲점에 이은 두 번째 사이트다. 수려한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워케이션(workation)' 문화를 담는 복합 공간으로 기획됐다. 인근에 자연 체험형 시설 스누피가든도 지난해 들어섰고, 제주 동쪽의 명소 빛의 벙커도 멀지 않다. **3** 코사이어티 빌리지 제주 내에는 12채의 숙박 시설과 공용 공간, 전시, 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카페 등이 있고, 레스토랑과 아트숍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숙박에는 기업 고객 대상의 '레지던스' 유형(6채)과 개인이 한 달 살기나 단기 체류가 가능한 '스테이' 유형(6채) 등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전부 1층과 2층짜리 독채다. **4~6** 시원하게 뚫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숲, 오름 등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숙박 시설 내부. 사운드 플랫폼 오드(ODE)의 블루투스 스피커 트랜스페어런트, 천연 비누 브랜드 한아조의 욕실용품, 요가 매트 등이 구비돼 있다. **7, 8** 투숙객의 공용 공간인 프라이빗 라운지. 1층엔 '밍글링' 공간, 2층엔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전망을 벗 삼아 조용히 독서나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각각 있다. **9~11** '신들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무속 신앙이 강한 제주의 지역사와 스토리를 반영한 개관전 〈PURE LAND : 바람이 머무는 땅〉이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12** 빌리지 입구에는 블루보틀 제주카페도 들어섰다. '슬로 커피'의 대명사인 블루보틀이 서울 외 지역에서 선보인 첫 번째 카페. 이미지 제공 블루보틀커피코리아 2, 6~9, 11번 이미지 Photo by SY Ko

그런데 노동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근로 환경에 대한 조직 차원의 고민이 진화하면서 이런 인식은 변하고 있다. 사실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지닌 일본에서도 이미 '일과 휴가의 동거'라는 워케이션 개념이 자리를 잡은 지 꽤 오래됐다고 한다. 도시의 딱딱한 사무실 공간에서 나오기 힘든 창조적 영감을 북돋우려는 기업 차원의 원격 근무 프로그램, 혹은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식이다. 더구나 지금은 원격 근무가 '뉴 노멀'처럼 당연시되는 팬데믹 시대 아닌가. IT 기업이나 진취적인 마인드의 조직들은 복지뿐 아니라 일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도 워케이션에 관심을 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워케이션' 철학을 공공연히 지향하는 코사이어티 빌리지 제주에서도 총 12채의 숙박 시설 중 절반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유형으로 운영하며, 연 단위로 계약한다(나머지 6채는 한 달 살기나 단기 체류를 원하는 개인 고객에게 할당된다). 모든 숙박 시설은 독채인데, 정원이 각 4명 정도라 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머무르는, 나름 '오붓한'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도 따로 있다.

#가능성의 공간, 일과 일상 사이의 여유 속에서 싹트는 창조적 발상

물론 일도 일 나름이긴 하다. 모든 직군에 해당되는 콘셉트는 아니다. "사실 하드워크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효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감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워크나 강도 높은 TFT 미팅 같은 일의 경우엔 다르지요." 코사이어티의 브랜딩을 담당하는 위태양 공동 대표는 '자발적인 고립' 속에서 집중을 통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창조적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워케이션' 공간인 만큼 집단 지성의 추구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휴식을 위한 '배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침실이 아니어도 언제든 편히 누워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이베드나 소파 등 편안한 가구가 놓인 코사이어티 빌리지의 숙소는 '미니멀한' 구성이지만, '힐링'에 필요한 요소가 골고루 녹아 있다. 탁 트인 창에 기막힌 풍경이 들어오는 공용 공간인 프라이빗 라운지는 그야말로 '백미'다. 거실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공간으로 기획했다는 이 라운지는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명상, '멍 때리기'를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단지와 연결된 당근밭이라든지 너른 들판을 끼고 있는 숲, 송당리의 보석 같은 시내(천미천)가 유유히 흐르는 오솔길 산책로 역시 영감 어린 체류에 보탬이 될 천연 자산이다. 자고로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고, 편견과 완고함, 편협함에 치명타를 날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 장기간의 체류 공간 대여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기에는 만만치 않기도 하다. 그래서 코사이어티 빌리지 제주는 올가을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6채의 레지던스 고객 후보 자체를 '성장하는 회사를 위한 멤버십'으로 상정했다(물론 개인 여행자를 위한 나머지 6채는 일반 호텔처럼 운영한다). "여기까지 와서 치열하게 일할 정도면 정말로 성장하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건강한 회사들과 같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회사들과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예전부터 '워케이션' 공간 문화에 대한 꿈을 꿔온 코사이어티 창업자들의 소망에 부합하듯 이미 기업 고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각 기업의 정체성에 맞게 가구나 오디오 등 하나의 콘셉트를 내세운 공간을 꾸미고 VIP 마케팅 프로그램을 입히는 아이디어도 싹트고 있다. 저마다의 공간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것이다.

#성수동 '이웃'과도, 고객 '브랜드'와도 손잡다, 협업의 선순환

이렇듯 '워케이션 공간 문화'라는 아이디어만으로 또 다른 발상을 낳는 선순환은 호스트 차원에서 은근히 바랐던 시너지이기도 하다. 코사이어티라는 브랜드의 태생과 성장 자체가 그러했다. 'co'와 'society'를 합친, '마음 맞는 창작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뜻하는 조어가 암시하듯 2019년 문을 연 코사이어티 서울숲점은 초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어울리는 '멤버십 플랫폼'을 지향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멤버십이 아니라 모두에 '개방된' 복합 공간으로 열게 됐고, 힘든 시기도 겪었지만, 이는 외려 기회로 작용했다. '도심 속 치유'의 분위기를 품은 서울숲 공간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잇 플레이스'로 입소문 나면서 브랜드들이 수준 높은 행사를 위해 대관 신청을 하는 인기 만점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코사이어티의 브랜드 인지도 역시 덩달아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다시 코사이어티의 두 번째 실험이자 도전인 '워케이션' 공간 문화에 동참하려 나서고 있다. 아예 공간 구성에 참여했거나, 잠재적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레지던스 고객으로서 말이다. 사실 코사이어티 빌리지 제주를 매장으로 선택한 블루보틀도 성수동의 '이웃' 브랜드로 자연스레 협업으로 이어진 사례다. "저희는 논리와는 상관없이 블루보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코사이어티랑 잘 맞고, 시너지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교류하면 역량이 융합되면서 창의적 시너지가 빚어진다는 이른바 '메디치 효과'를 떠올리게 된다. 업종은 이질적일 수 있어도 서로가 동의하는 '가치'의 지향점은 비슷하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결국 문화적 동맹이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밈'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문화'와 '창조적 상생'을 키워드 삼아 새로운 시도를 꾀해온 코사이어티의 행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결로 펼쳐질 예정이지만, 한 가지 '사명'만은 그대로 간직해나가기를 바란다. 바로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이자 거점'을 지향하는 사명이다. 글 **고성연**

ultimate elegance

눈부신 광경으로 시간의
흐름을 담아낸 로맨틱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배누아 알롱제 워치** 오벌형 핑크 케이스 전면에 화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장식한 후, 블루검 모양 시곗바늘을 올려 세련되면서도 강렬한 개성을 내뿜는다.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메캐니컬 무브먼트 1917 MC 칼리버로 구동하며, 수심 약 30m 방수 기능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바쉐론 콘스탄틴 에제릭 셀프 와인딩 다이아몬드 피베** 다이얼은 물론 베젤과 케이스 측면, 러그와 러그 사이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매력을 드러낸다. 1시와 2시 방향 사이에 크라운과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오프셋 날짜창을 배치해 기술력과 미학적인 완성도까지 이루는 제품. 유려한 광택을 발하는 캐쉬넛 새틴 스트랩으로 기품 있게 마무리했다. 8천4백만원. 문의 02-3446-0088 **파이제 트래디션 워치 34MM** 두께가 2mm밖에 되지 않는 울트라-신 무브먼트 430F를 탑재한 모델로 파이제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과 주얼리로서 화려한 면모까지 엿볼 수 있는 아이템. 화이트 골드와 화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인 다이얼에 블루 사피어 인덱스를 올려 미감을 더했다. 1억원대. 문의 02-3479-1802 **쇼메 조세핀 컬렉션 롱드 드 뉘 워치**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뤄진 소용돌이 모양의 러그와 물방울 형태 케이스를 다이아몬드로 촘촘하게 채우고, 12시 방향 인덱스에는 0.02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블랙 새틴 스트랩으로 기품 있게 마무리한 로맨틱 피스 8천만원대. 문의 02-3442-3359 **티파니 캐테일 워치** 가느다란 여성의 손목을 강조하기에 이상적인 사이즈인 21X34mm의 오벌형 케이스로 선보이는 제품. 인덱스를 없앤 화이트 골드 다이얼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하고, 베젤과 버클까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가냘픈 손목을 발하는 블랙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세련된 품격을 발한다. 3천2백60만원. 문의 02-6250-8620 **쇼파드 프레셔스 쇼파드 워치**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구현한 주얼리 워치. 총 5.44캐럿에 달하는 페어 컷 다이아몬드 37개와 총 3.08캐럿의 4백4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0.52캐럿의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10개를 세팅해 정통 하이 주얼리의 진수를 발한다. 2억2천1 백20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이주이**

enchanting stone

농익은 과일처럼 짙은 컬러를 뽐내는 스톤 주얼리의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풍부한 컬러감과 절고 경쾌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불가리 컬렉션에서 새로 선보이는 네크리스. 한쪽은 로즈 골드로 된 테두리 안에 그린 제이드 스톤으로, 또 다른 쪽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양면 착용 가능하다. 6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피아제 포제션 오픈 링 18K 핑크 골드 밴드 왼쪽 끝에 장식된 2개의 회전하는 다이아몬드 피베 세팅과 그 위에 올린 생생한 레드 컬러 카닐리언이 돋보이는 오픈 링. 손가락 굵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3백90만원대. 문의 02-3479-1802

반클리프 아펠 빠들리 컬러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밴드 한쪽 끝에는 라운드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마무리했으며, 다른 한쪽은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카닐리언으로 장식해 손목에 강렬한 포인트를 주는 브레이슬릿 2천4백만원대. 문의 1668-1906

프레드 빵 드 슈크르 아마조나이트 핑크 골드 펜던트 핑크 골드 스퀘어 프레임 가운데 자리한 아마조나이트 스톤을 42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감싸 신비로움과 우아함을 더하는 펜던트 1천5백66만원. 문의 02-514-3721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링 물방울 모양의 화이트 골드 프레임에 1개의 페어 컷 아쿠아마린과 그를 둘러싼 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극강의 반짝임과 매혹적인 컬러를 선사한다. 9백만원대. 문의 02-2039-3854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링 브라운 다이아몬드와 에메시스트를 세팅해 데이지 플라워의 향내와 봄빛을 청교하게 형상화했다. 로맨틱하면서도 컬러가 강렬한 스톤이 손가락에 포인트를 준다. 3백39만원. 문의 02-4671-6262

부쉐론 퍼펙 브혐 카닐리언 투헤드 링 반영, 행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 착용하는 이에게 용기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지닌 2개의 페어 컷 카닐리언 원석이 열로 골드 밴드 위에 안정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링 6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레이디** 민트 그린 다이얼이 매력적인 워치. 스틸 케이스와 스트랩이 스포티한 감성을 주면서도 인덱스와 베젤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해 여성의 당당함과 우아함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했다. 지름 36mm 케이스는 일상생활하기 편하면서도 한눈에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6시 방향에 날짜창을 더해 바쁜 현대 여성의 동반자로 제격.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피아제 포제션 지름 29mm의 동그란 케이스에 얇은 스트랩을 매치한 피아제 메종의 아이코닉 디자인 워치. 시선을 사로잡는 블루 터쿼이즈 다이얼과 같은 컬러의 스트랩으로 손목에 강렬한 포인트를 준다. 핑크 골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은 우아한 매력까지 더한다.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함과 유쾌함을 담은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믹스 매치 가능하며 행운과 행복, 사랑을 전하는 의미를 담았다. 2천7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티파니 T 스마일 리미티드 에디션 렉탱글 티파니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으로, 시그너처 주얼리인 T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심플한 스퀘어 디자인에 베젤을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우아함을 더한다. 케이스 오른쪽에는 화려한 파베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T 모티브를 표현해 티파니 T 컬렉션 주얼리를 연상하게 한다. 또 스틸 케이스와 스트랩이 티파니의 상징인 민트 컬러 다이얼과 어우러져 시크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34 심플하고 모던한 스틸 케이스에 딥 그린 다이얼과 스트랩으로 컬러 포인트를 준 세련된 디자인. 다이아몬드 12개를 세팅해 시간을 알려주는 인덱스로 우아함을 담았다. 산토니에서 공수해 수작업으로 채색한 그린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으로 패셔너블한 느낌을 주어 심플한 의상에 포인트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 직경 34mm 케이스 사이즈에 오토매틱 셀프 와인딩으로 작동한다. 6백50만원. 문의 1670-7363

까르띠에 탱크 머스트 인덱스를 생략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다이얼의 그린 컬러가 한층 돋보인다. 다이얼 컬러와 통일감을 주는 그린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크라운에는 카보숑 컷 합성 스피넬 1개를 세팅해 포인트를 더했다. 케이스 지름 33.7mm로 여성 손목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자랑한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약 30m 방수 가능하다. 3백46만원. 문의 1566-7277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듀에토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딥 블루 컬러 다이얼을 장착한 스퀘어 케이스 워치로,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준다. 케이스 사이즈 24.4×40mm의 직사각형으로 클래식한 느낌을 더하며, 착용 시 모던하고 슬림한 연출이 가능하다. 베젤 위아래로 장식한 두 줄의 다이아몬드는 아르데코 스타일 코드를 아름답게 재현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8백60만원대. 문의 1670-1833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 직경 36.5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베젤뿐 아니라 크라운까지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마무리해 세련된 우아함을 보여준다. 선버스트 새틴 마감 기법으로 완성한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슬림한 아워 마커와 다이얼 표면을 수놓은 펄 미닛 트랙이 빛에 따라 반짝이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트랩은 다이얼과 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앨리게이터 가죽으로 마무리했다. 5천1백만원대. 문의 1670-4606 에디터 **성정민**

dream color

심플함에 컬러를 더해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컬러 다이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ponsored by **COLOMBO VIA DELLA SPIGA**

Bags on top

자연스러운 품위와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2021 F/W 백 트렌드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lassics, Revisited

클래식 아이템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터드 장식이나 톱 핸들같이 추가적인 요소로 변주를 주었다. 디자이너들은 특히 이번 시즌 지적이고 모던한 인상을 주는 네이비 블루 컬러를 입혀 절제되고 우아한 애티튜드를 제안한다.

카프 스킨 플랩 핸드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 chanel.com.
양가죽 로만 스터드 숄더백 3백9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543-5125

One Stop S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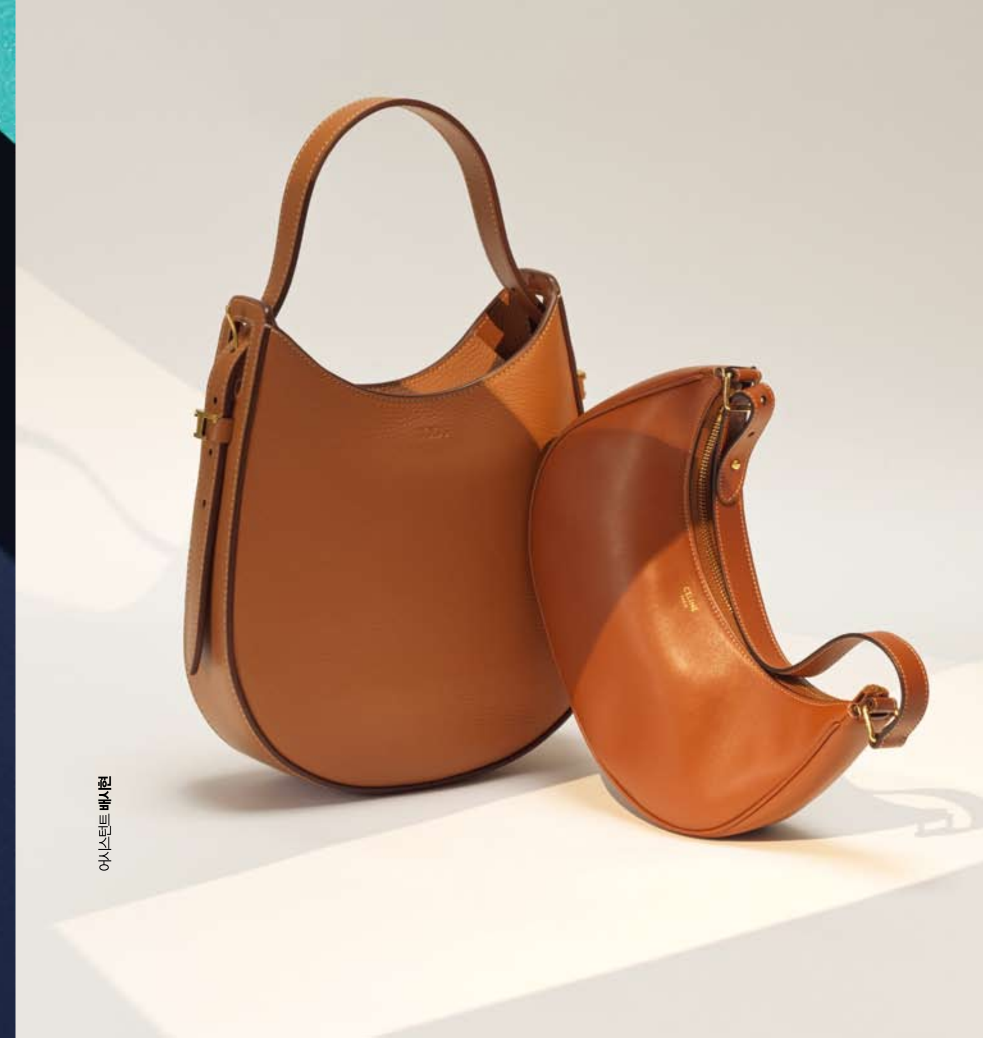
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휴대할 수 있는 넉넉한 가방이 필요할 터!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요가 매트나 식료품까지 휴대할 수 있는 최적의 스토리지를 자랑하는 빅 사이즈 토트백을 눈여겨볼 것.

구찌 다이애나 라이트 블루 미디엄 토트백 5백40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멀티컬러 컨스텔레이션 엠브로더리 디올 북토트 백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Make the Curve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추구하는 컴포트 웨어 트렌드와 함께 떠오른 호보 백. 토즈, 셀린느를 비롯해 패션 하우스 각각의 미감으로 채운 각양각색의 버전으로 제시한다.

브라운 토즈 오보에 백 2백7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셀린느 미디엄 스트랩 숄더백 2백63만원 **셀린느.** 문의 02-549-6631



어시스턴트 **배시현**

Modern Art Club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도 예술적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아트 백. 고도의 장인 정신이 깃든 예술적 감성을 입혀 근사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카우하이드 가죽에 프린트한 카퓌신 MM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트롱프뢰유 모티브 켈리 25 르투르네 인앤아웃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주이**

2021 F/W Menswear Trend Report

완벽한 실루엣과 여유로운 애티튜드로 부드러운 남성성을 어필한 이번 시즌. 실험적인 접근은 뒤로하고, 의복 본연의 본질에 집중한 듯 보인다. 일상성이 강조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요소는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기하학적 모티브 혹은 컬러 블로킹을 활용한 정도다. 드레싱 가운이나 폴로 셔츠 등 실용적인 아이템이 강세를 이루며, 스타일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든 아이템 하나하나가 스타일에 완성도를 더한다.

*trend 1_* Refined Casual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면서도 말쑥한 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이라면 '폴로 셔츠'를 눈여겨볼 것. 1920년대 테니스 코트에서 선수들이 운동복으로 착용한 아이템으로, 2021년에는 캐주얼한 모습으로 바뀌어 수트와의 페어링을 선보이고 있다. 포인트 칼라나 플래킷 등 클래식 셔츠의 필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주름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이 니트 폴로 셔츠의 매력. 부드러운 균형감을 바탕으로 기분 좋은 착용함을 선사하는 아이템은 그레이나 진녹색, 샌디 컬러 등 섬세하게 조절된 고급스러운 톤을 통해 TPO 구분 없이 활용하기 쉽도록 전개된다.

*trend 2_* Play Baseball

외국 하이틴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과잠'으로 통용되는 야구 점퍼가 남성복 컬렉션에 미묘하게 스며들었다. 이에 따라 볼캡(야구 모자)이 버킷 햇 트렌드를 추월하고, 스니커즈와 함께 주요 스트리트 웨어 아이템이 되었다. 코튼 캔버스와 저지 등 실용적인 소재의 점퍼를 저지 슬랙스, 데님 같이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과 매치해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캠퍼스 분위기를 형성하는 각양각색의 엠블럼으로 하우스의 상징적인 면모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trend 3_* Leather Obsession

가죽 소재의 활약은 이번 시즌에도 계속된다. 다소 정제된 스타일을 요하는데, 디테일은 최대한 덜어내고 가죽 자체의 강렬한 매력과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도회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디자이너마다 제각각 특유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조합해 고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 프라다에서는 더블 버튼으로 '각'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펜디에서는 발목을 덮을 듯 길게 늘어진 롱 실루엣이 주를 이뤘다. 레이어링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죽 코트만으로 룩에 긴장감을 주는 방식이 이들의 공통분모다.

*trend 4_* City Slope

이번 겨울엔 설원을 맘껏 달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도 될까? 지방시, 돌체앤가바나, 오프화이트 쇼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슬로프에서 칼바람에 맞설 준비를 끝낸 위풍당당한 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울트라 패딩 재킷, 다운 필링 작업복 바지 등 실제 기능성 원단으로 구현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라면 설령 도시에 머물러야만 한다 해도, 알프스 설원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스키 웨어와 함께 고글,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바라클라바(복면)도 매치해 한겨울 정취를 만끽해보자.

*trend 5_* Dressing Gown

영하로 곤두박질치는 기온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겨울 코트 트렌드는 '목욕 가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데이 웨어에 라운드 웨어를 걸치는 식의 일요일 아침 느긋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담은 스타일에서 기분 좋은 편안함과 자유분방한 애티튜드가 강조된다. 완벽하게 짜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롱 & 린(long & lean)의 여유로운 실루엣이 주를 이루는데, 클래식하고 우아한 버전은 루이 비통과 에르메네질도 제냐, 톰 포드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펜디에서는 애슬레저와 결합해 패딩을 적용한 다운 재킷 형태로 보다 대담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trend 6_* Sandy Tone

뉴트로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0년대를 물들인 캐러멜 컬러가 구찌와 펜디, 아미, 르메르 등 런웨이에서 대거 포착되었다. 사파리나 시막 등에서 영감을 얻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러가 팔레트를 이루고, 섬세한 톤 조절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명 '깔맞춤'으로 모노크롬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 캐시미어나 스웨이드 같은 포멀한 소재는 카디건이나 무톤 재킷같이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중화해 세미 캐주얼 룩을 제안한다.

*trend 7_* Skirt, Tunic & Quilt

이전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연령과 취향의 남성을 포괄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은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다양성을 부각했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는 치마, 퀼트, 튜닉 등이 있는데, 이들은 컬렉션의 중심에서 캐주얼 스타일부터 센슈얼한 스타일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 루이 비통 쇼에서 버질 아블로는 바지 위에 A라인 퀼트 스커트를 입은 다수의 모델을 무대에 세웠고, 드리스 반 노튼 쇼에서는 튜닉 스타일이 대세를 이뤘다. 퀼트나 튜닉 스커트를 입을 때는 무릎 바로 아래 길이에 이르는 여유롭고 유연한 스타일, 또는 커팅을 결합한 방식이나 주름 디테일을 살린 것을 택해 질감을 더한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trend 8_* Geometric Knitwear

혹한 속에서 포근한 온기를 유지해주는 친숙한 니트 스웨터는 일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모티브를 새겨 넣어 활력을 더했다. 패턴이나 컬러로 포인트를 준 시각적인 스타일이 강조되는데, 프라다와 에르메스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듯 '지오메트릭' 패턴이 대세다. 다채로운 컬러 블로킹으로 이루어진 대담한 패턴이 룩에 경쾌한 분위기를 불어넣고, 모헤어 크루 넥 디자인이나 가슴 중앙까지 파인 V넥 스타일로 다양한 옵션을 이룬다. 에디터 **이주이**

Refined Casual_ **ERMENEGILDO ZEGNA**

Refined Casual_ **HERMÈS**

Play Baseball_ **BURBERRY**

Leather Obsession_ **PRADA**

City Slope_ **DOLCE & GABBANA**

Dressing Gown_ **FENDI**

Dressing Gown_ **LOUIS VUITTON**

Skirt, Tunic & Quilt_ **OFF WHITE**

Skirt, Tunic & Quilt_ **LOUIS VUITTON**

Sandy Tone_ **GUCCI**

Sandy Tone_ **AMI**

Geometric Knitwear_ **PRADA**

Geometric Knitwear_ **HERMÈS**

엠로 V넥 니트 톱 3백32만원, 패턴 보디수트 가격 미정, 블랙 터틀넥 가격 미정, 그린 베르니체 숏즈 1백45만원 모두 **프라다.**

End of the Road

계절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을, 겨울을 여는 2021 F/W 남성복 키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 멀티컬러 니트 톱, 오렌지 컬러 터틀넥, 블랙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맨.** (오른쪽) 레드 컬러 재킷, 멀티컬러 셔츠, 핑크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벨루티.**

(왼쪽) 블루 컬러 패딩 재킷 4백만원대,
하프 슬리브 실크 셔츠 1백만원대, 울 팬츠
1백만원대 모두 **펜디.** 블랙 컬러 앵클부츠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그레이 컬러
알파카 코트 5백만원대, 블랙 & 그레이 컬러
스트라이프 모헤어 니트 터틀넥 1백만원대,
그레이 컬러 울 팬츠 90만원대, 블랙 컬러
레이스업 부츠 1백만원대 모두 **펜디.**

(왼쪽) 브라운 컬러 레더 시어링 코트
2천2백72만원, 디스트로이드 후드 톱
가격 미정 **자방시.** (오른쪽) 브라운 컬러
자물쇠 장식 재킷 3백55만5천원,
스웨어 넥 톱 가격 미정, 팬츠 1백22만원,
백 에이프런 형태의 벨트 가격 미정,
퍼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자방시.**

블랙 컬러 레더 코트 1천1백36만원,
블루 그린 컬러 톱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레더 팬츠 5백82만원,
블루 그린 컬러 앵클부츠 89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왼쪽) 그레이 컬러 니트 카디건, 블루 컬러 셔츠, 블랙 컬러 와이드 팬츠, 블랙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튼 by 분더샵 맨.**
(오른쪽) 베이지 컬러 재킷, 스트라이프 셔츠, 데님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튼 by 분더샵 맨.**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29만원 **알렉산노 가리아니.**

(오른쪽) 그레이 컬러 울 코트, 버건디 컬러 오버 셔츠, 블루 컬러 이너 셔츠, 버건디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체크 후디드 재킷, 이너 셔츠, 그레이 컬러 팬츠, 블랙 컬러 앵클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블랙 컬러 퍼 코트 4백70만원, 피시넷 톱 2백90만원, 팬츠 89만원 모두 **발렌티노**.
레이스업 더비 슈즈 1백23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오른쪽) 실버 모노그램 벨트 코트, 그린 컬러 스트라이프 셔츠, 그레이 컬러 팬츠, LV 트레이너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헤어 **강민정**
메이크업 **이정**
모델 **Bastian Bergstrøm, Franek**(W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4-77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프라다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펜디 02-514-0652
디올 맨 02-3480-0104
발렌티노 02-2051-4653
지방시 02-546-2790
벨루티 02-547-1895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51-4653
드리스 반 노튼 by 분더샵 맨 02-2056-123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칼라가 빳빳한 코튼 소재 셔츠 47만원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코튼 소재 셔츠 85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면 소재 셔츠 60만원대 **톰 브라운.** 문의 02-6905-3505

about a frame

남자의 룩은 안경테로 완성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단만 골드 프레임을 더한 반무테 형태로 깔끔한 인상을 주면서도 오버사이즈 렌즈가 빈티지한 매력을 더한다. 59만5천원 **구찌.** 문의 02-3452-1921. 메탈 소재에 보잉 스타일 프레임으로 양쪽 상단 렌즈를 연결하는 다리 모양이 독특한 매력을 준다. 79만원대 **톰 브라운.** 문의 02-6905-3505. 프랭크 티타늄 소재의 빈티지한 실버 컬러 프레임으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 41만9천원 **레이밴 by 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각 잡힌 캐츠 아이 프레임을 가미해 동그랗고 광대가 두드러진 얼굴형을 보완해준다. 34만4천원 **프라다 by 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브라운 컬러에 카무플라주 패턴을 가미해 색다른 매력을 주며 라운드 셰이프로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하기에 좋다. 31만6천원 **버버리 by 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블랙 뿔테에 각진 프레임으로 멋스러우면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25만9천원 **돌체앤가바나 by 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그레이 컬러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프레임이 올드 스쿨 룩을 연출하는 데 제격. 센스 있고 개성 넘치는 룩 연출을 돕는다. 80만원대 **톰 브라운.** 문의 02-6905-3505.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배시현**

whiskey wonders

혀끝에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위스키를 즐기기에 더없이 완벽한 계절, 가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코어 1841 위스키 디캔터 1백55만원 **바카라.** 문의 02-3448-3778

위스키는 취향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다. 향, 풍미, 질감에서 비롯된 복잡 미묘함에 통달하려면 섬세한 감성이 요구된다. 싱글몰트의 명성은 여전히 높지만, 여러 가지 숙성 풍미가 어우러진 블렌디드 위스키도 애호가들을 만족시킨다. 이는 수많은 통에서 숙성된 원액을 공들여 블렌딩한 결과이며, 절묘한 배합으로 환상적인 풍미를 이루기 때문이다. 입문자라면 첫 모금만으로 위스키의 가치를 섣불리 단정 짓지 말 것! 두 번째 모금부터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데, 압도적인 알코올의 얼얼함이 사라지고, 나무통 숙성을 거치면서 배어 나온 향기를 차츰 음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크렘 브륄레 위에 올린 얇고 파삭한 캐러멜 토핑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마른 나뭇가지로 피운 모닥불 냄새가 떠오르기도 하며, 시트러스나 사과 계열의 기분 좋은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한다. 위스키를 더 감미롭게 즐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을 한두 방울 섞어 마시길 권한다. 이는 위스키 내의 반응을 유발해 풍미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인데, 최종 풍미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염소 등 불순물이 여과된 증류수가 가장 좋다. 차갑게 마시고 싶다면, 얼음을 넣어 마시는 언더록보다는 '위스키 록(스톤 형태의 큐브 활용 등)'을 추천한다. 이는 얼음에 의한 희석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차갑게 마시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주니 말이다. 사실 위스키는 실온이나 체온과 가까운 온도에서 최상의 아로마와 풍미를 발산하기에, 위스키 잔을 3~5분 정도 감싸준 후 마시길 권하기도 한다. 알코올 분자가 기화되어 톡 쏘는 얼얼함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풍미 분자가 남아 새로운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스키는 숙성 기간이 통에 담겨 있는 기간으로 한정되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보관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위스키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는 꾸준히 마시는 것이다. 초반에 천천히 마시다 병이 비워짐에 따라 속도를 올려가며 마시는 것이 좋다. 혹은 유리구슬이 좋은 해결책이 된다. 위스키가 비워지는 만큼 병 안에 유리구슬을 넣어 공간을 채움으로써 산소 포화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 더 작은 병에 옮겨 담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스키 테이스팅에는 튤립 모양의 잔이 좋다. 가장자리 주위로 향을 모아주는 덕에 맛과 향을 깨우고 본연의 노즈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섬세한 감각으로 위스키만의 복잡함을 즐겨보길! 에디터 **이주이**

(왼쪽부터) **글렌피딕 18년** 버번 오크 배럴에서 18년 이상 숙성 후 올로로소 셰리 캐스크에서 3개월 추가 숙성하는 메링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장기간 숙성해 셰리 우드의 달콤함과 오크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녹진한 사과 향과 알싸한 맛이 독특한 느낌을 준다. 잔 테두리에 생강을 문지른 뒤 싱글몰트 원액과 소량의 물을 함께 즐겨볼 것을 추천한다. 700ml 20만원대. 문의 02-2152-1600 **로얄살루트 21년** 신선한 배와 잘 익은 멜론의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녹아든 오렌지 마멀레이드의 첫맛으로 시작해 톡 쏘는 듯 스파이시한 향미와 헤이즐넛의 고소한 맛이 여운을 남긴다. 700ml 20만원대. 문의 02-3466-5700 **더 글렌리벳 15년** 숙성 기간 중 마지막 3년을 코냑을 숙성시키는 프렌치 리무쟁 오크로 숙성한다. 덕분에 특유의 이국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크 통 특유의 향과 드라이한 느낌과 함께 부드러운 버터 향이 어우러진 섬세한 풍미를 지녔다. 여기에 달콤한 아몬드 맛이 주는 부드러운 질감이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긴다. 700ml 14만원대. 문의 02-3466-5700 **발렌타인 21년** 달콤한 꿀과 사과, 플로럴, 스모크와 감초가 어우러진 아로마틱한 풍미가 매력적이다. 드라이 셰리 느낌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원숙한 피니싱으로 부드러운 목 넘김과 균형 잡힌 깊고 우아한 맛을 지녔다. 700ml 25만원대. 문의 02-3466-5700 **발베니 포트우드 21년** 발베니 위스키 원액을 포르투갈 빈티지 포트와인이 담겨 있던 오크 통으로 옮겨 추가 숙성하기에 포트와인 특유의 풍미가 함께 느껴지는데, 발베니 고유의 부드럽고 은은한 견과류와 과일 향이 균형 잡힌 달콤한 맛과 조화를 이룬다. 700ml 60만원대. 문의 02-2152-1600

참고 **〈위스키 캐비닛〉(시그마북스)**
어시스턴트 **배시현**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 건강을 지켜줄 필수 아이템 13.

photographed by **park kun w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루즈 데코르테 #02 시그니처 레드** 부드럽게 발려 입술에 '착' 하고 붙는 글로시한 텍스처가 압권이다. 풍부한 보습 성분 덕에 마치 립글로스를 바른 듯 볼륨감 넘치는 입술을 연출해주는데, 3백65일 립밤을 휴대해야 하는 건조한 에디터의 입술도 만족시켜줄 정도. 빈틈없이 채워주는 선명한 컬러감도 만족스러워 백 점 만점에 백 점을 주고 싶다! 3.5g 4만1천원대.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이주이*

딥티크 르 그랑 투어 컬렉션 밀리에스 센티드 오발 여행 가고 싶은 에디터의 마음을 대변하듯 때마침 나온 딥티크 60주년 컬렉션. 그중 태우지 않고도 공간의 향기를 효율적으로 바꾸어주는 석고 방향제가 아주 훌륭하다. 이탈리아의 무화과 농장을 거니는 듯 프레시한 향과 한순간 그리스 바닷가 마을로 데려다 놓은 듯한 무드를 선사한다. 35g 10만7천원. 문의 02-3479-6049 *_by 에디터 성정민*

실큰 퓨어 자극 없이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뷰티 디바이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클렌저를 피부에 얇게 바르고, 타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거품이 일며 섬세하게 클렌징해준다. 클렌징 모드는 모공 속 노폐물 제거에 적합하고, 마사지 기능을 이용하면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타이머가 60초로 설정되어 있어 과도한 클렌징을 막아주며, 150g 정도의 가벼운 무게도 만족스럽다. 12만9천원. 문의 080-246-1234 *_by 에디터 이주이*

에르메스 트윌리 오 진저 통통 튀고 생기 넘치는 소녀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향. 화사한 피오니 향이 감각을 일깨우고, 달콤한 진저와 신선한 시더우드가 어우러져 밝고 경쾌한 느낌을 전한다. 실크 리본을 두른 옐로 보틀에 덩달아 발랄해지는 듯한 느낌. 50ml 14만3천원.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이주이*

로라 메르시에 트랜스루센트 루스 세팅 파우더 라이트 캐쳐 #셀레셜 라이트 컬러감이 거의 없는 투명한 텍스처로 피부에 들뜸 없이 자연스러운 윤광을 부여해준다. 모공과 주름을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기능도, 장시간 이어진 야근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도 만족스럽다. 29g 5만6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주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바디 워시 각질 케어 성분을 함유해 물리적 자극 없이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를 돕는다. 무엇보다 샤워 후 찢어질 듯한 건조함 없이 촉촉하고 매끄러운 보디 피부로 마무리해주는 것이 큰 장점. 510ml 2만1천원. 문의 1811-9415 *_by 에디터 성정민*

샤넬 뷰티 르 리프트 립 앤 컨투어 케어 입술만을 위한 탄력 크림으로 식물성 알파파 농축물과 바이오 폴리머를 함유했다. 끈적이지 않고 실키한 텍스처가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단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 즉각적으로 리프팅 효과가 느껴지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15g 9만7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_by 에디터 이주이*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같은 때 선크림만 바르자니 초췌한 몰골을 가릴 방법이 없던 차에 이 제품을 만났다.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피부 속에 숨어 있던 은은한 광채를 끌어올려 마치 원래 좋은 피부인 듯 연출해준다. 50ml 3만2천원. 문의 1588-3819 *_by 에디터 성정민*

돌체앤가바나 뷰티 펠린아이즈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스타일로 위로 갈수록 슬림해지는 붓 펜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홑꺼풀에 작은 눈도 정교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번만 터치해도 진한 블랙 컬러로 발색되어 시크한 캐츠 아이를 그릴 때 특히 요긴하다. 지속력은 다소 떨어지나 클렌징 티슈 하나로 말끔하게 지워져 눈 자극이 덜한 것도 장점. 8ml 4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성정민*

디에스앤더가 톰 오브 더 이글스 퍼퓸드 캔들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독수리 무덤에서 영감을 얻은 향이라고 해 텁텁하고 우울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다. 레진과 플랜트 오일 등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신선한 이끼와 시원한 바다가 느껴지는 향. 은은하게 기분 좋은 복숭아 향이 풍기기 시작했다. 198g 8만원. 문의 02-6905-3353 *_by 에디터 장라윤*

설화수 설린 워터에센스 가을 바람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땅기고 갈라지는 느낌을 팍팍 주는 건성 피부다. 설화수 워터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했는데, 내용물이 피부 속을 비집고 들어가 하루 종일 든든하게 버텨주는 느낌이다. '겉바속촉'이라고, 피부 겉은 건조한 바람에 말라도, 속은 확실히 쫀득하고 촉촉하다. 150ml 10만원대.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장라윤*

이솝 파슬리 씨드 안티 옥시던트 인텐스 세럼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일명 '턱드름'에 시달리고 있다. 마침 만나게 된 이 세럼은 도시인을 위한 피부 보호 데일리 세럼으로, 흡수가 빠르고 기분 좋게 매트한 느낌이라 미끈거리는 오일을 싫어하는 이에게 안성맞춤. 이솝 제품 특유의 향도 마음에 든다. 60ml 9만5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장라윤*

에어린 시더 바이올렛 오 드 퍼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딱 이 시기에 잘 어울리는 향. 상쾌하고 시원한데 높고 깊은 느낌이다. 사방이 푸른 골짜기로 뒤덮인 숲 속 오솔길을 걷는 듯한 풍성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지는데, 아마도 플로럴 우디 계열 향수이기 때문일 듯. 제비꽃잎, 버지니아 시더우드, 엠버, 그리고 가을 이끼, 호두, 샌들우드 향이 합쳐져 감각적이다. 50ml 15만5천원대.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장라윤*

※ 장라윤(40대 건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이주이(20대 지·복합성)

SHOWROOM

티파니

JEWEL & WATCH

에르메스 워치

몽블랑

오메가

몽블랑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는 날짜와 요일, 월, 문 페이즈를 담은 시계로 손목 위의 달력이라고 불린다. 실버 화이트 다이얼에 매치한 블루 컬러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은 플로렌스의 리치몬트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 완성도가 높다. 문의 1670-4810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스몰 세컨즈 그레이 색상 다이얼과 케이스 지름 38mm의 콤팩트한 사이즈가 매력적인 씨마스터 아쿠아 스몰 세컨즈는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로 수심 150m까지 방수 가능하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세드나™ 골드 링을 장착한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 특징이다. 문의 02-3467-8632

티파니 T1 와이드 풀 다이아몬드 힌지드 뱅글 티파니가 9월의 아이템으로 알파벳 T 형태를 따라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과 깔끔한 디자인에 파베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뱅글을 제안한다. 이 제품을 포함한 티파니 T1 뱅글은 메탈 소재와 다이아몬드를 하프라인에만 세팅한 제품, 와이드와 내로 버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취향에 따라 만날 수 있다. 문의 02-6250-8600

에르메스 워치 아쏘 더 쓰리 그레이스 2020년 영국 아티스트 앨리스 설리가 디자인한 실크 스카프의 테마를 재해석해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8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에르메스 시계 워크숍에서 제작한 블루 사파이어 악어 스트랩으로 깊은 여운을 준다. 문의 02-542-6622

BEAUTY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쉬어 롱 웨어 메이크업 베스트셀러 더블웨어 라인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어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땀과 습기에 강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베이스 제품으로, 자외선,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6971-3212

끌레드뽀 보떼 더 세럼 리미티드 에디션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화려한 프레스코 기법을 더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듀오 디자이너 알렉스 & 마린(Alex & Marine)이 패키지를 디자인한 제품을 출시했다. 더 세럼은 세안한 후 가장 먼저 사용해 피부에 유연성을 불어넣고 탄력, 수분을 공급해 건강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564-7700

펜할리곤스 라켓 영국의 역사 깊은 라켓 경기를 담아낸 향수 라켓은 1989년에 출시한 원래 제품에 비해 플로럴과 파우더리함을 덜어낸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기가 오래 지속되어 긴 시간 외출 시에도 기분 좋은 잔향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80-363-5454

뽀아레 수블리메 라 크렘 뽀아레에서 피부 구성 요소를 견고하게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을 출시했다.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브랜드 대표 성분인 화이트 로즈 줄기세포 추출물이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문의 02-310-5025

끌레드뽀 보떼

뽀아레

펜할리곤스

에스티 로더

FASHION

미우미우

샤넬

브루넬로 쿠치넬리

처치스

파비아나 필리피

보테가 베네타

파비아나 필리피 2021 F/W 컬렉션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한 2021 F/W 컬렉션을 출시했다. 보온성과 활동성, 편안함을 더한 환절기용 오버사이즈 벨루어 셰어링 하프코트는 잉글리시 립의 니트를 조합해 캐주얼함과 우아함을 겸비했으며, 데님을 매치해 편안하고 기품 있는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문의 02-6905-3626

샤넬 2021~22 공방 컬렉션 장인 정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샤넬이 2021년 12월 7일 파리에서 공방 컬렉션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수, 깃털, 파뤼리에, 플리츠, 제화, 모자, 장갑 장인과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러 제품을 만들고 있다. 문의 080-200-2700

보테가 베네타 퍼들 봄버 클래식한 하이킹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남녀 공용 슈즈를 출시했다. 패딩 처리한 테크니컬 패브릭 원단을 사용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착용 가능하다. 볼륨감 있는 라운드 토와 곡선 형태로 디자인한 고무 아웃솔로 포인트를 더했다. 문의 02-3438-7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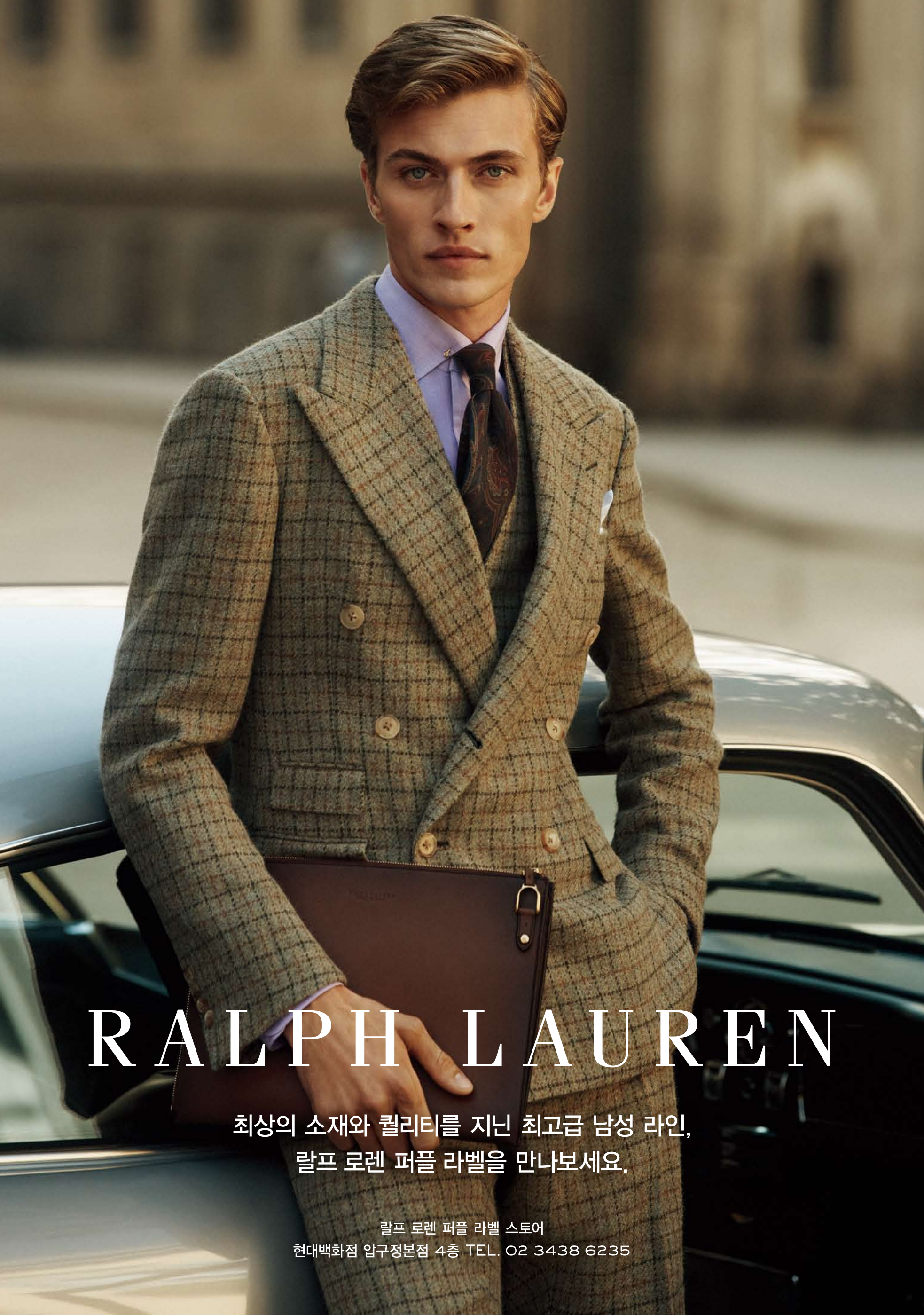
미우미우 우먼스 테일 21세기의 여성성을 독창적인 여성 감독들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단편영화 시리즈의 22번째 영화를 공개했다.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영화상에 후보로 오른 튀지니 출신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의 작품으로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냈다. 주인공이 미우미우 의상과 제품으로 스타일링한 〈I and the Stupid Boy〉는 9월 4일 베니스에서 공개했다. 문의 02-3218-5331

브루넬로 쿠치넬리 2021 데님 아이코닉한 인디고 컬러부터 세련된 그레이 컬러까지 데님의 텍스처가 돋보이는 다양한 컬러 그러데이션이 특징인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데님을 가을, 겨울 아이템으로 선보였다. 복고풍 실루엣과 현대적인 볼륨의 조화는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을 드러낸다. 문의 02-3448-2931

처치스 로열 컬렉션 처치스에서 4가지 스타일로 구성한 로열 컬렉션을 출시했다. 클래식한 첼시 부츠인 비스카운트는 세계 최고의 제혁소에서 만든 최고급 가죽으로 장인이 흠집 없이 제작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문의 02-3479-1140

구찌 재키 1961백 2020년 F/W 컬렉션 패션쇼에서 선보인 구찌의 시그너처 핸드백 라인인 재키가 잇 백으로 자리 잡은 호보 백 디자인의 커브 셰이프를 담아 재탄생했다. GG 수프림 캔버스, 블랙, 라일락 등 다양한 컬러와 미디엄, 스몰, 미니 등 3가지 사이즈로 구성했다. 문의 02-3452-1921

구찌


RALPH LAUREN
최상의 소재와 퀄리티를 지닌 최고급 남성 라인,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을 만나보세요.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TEL. 02 3438 6235